

[영국] 식음료 제조업체, 2011 년 회복 탄력성 보여

최근 영국의 식음료 연합회 (the Food and Drink Federation, FDF)가 실시한 비즈니스 신뢰성 조사에서 영국이 몇 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년 영국 식음료 제조업체들은 8,500 여 가지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이번 3/4 분기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제품의 가지 수는 500 개가 증가하여 2020 년까지 20% 성장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영국 식음료 연합회는 전망하고 있다. 식음료 연합회 회장인 Angela Coleshill 씨는 식음료 제조업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합회에서는 2020 년까지 20%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게 됐다고 전했다. 또한 회원인 제조업체들도 성장 전략을 세우고 신제품 개발 및 출시, 자본 투자,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또한 서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이머징 마켓으로 진출하는 식음료 제조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식음료 수출을 통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2011 년 첫 분기 동안에 총 8.8 십억 파운드 (한화 16 조 원) 규모의 식음료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, 이는 2010 년 동기간 실적과 비교해서 12%가 증가한 수치이다.

또한 이번 3/4 분기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업체의 72%가 전년과 대비하여 수출이 증가했거나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고 응답하였다. 영국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동향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0%가 판매량이 상승하였거나 유사하다고 응답했으며, 마지막 4/4 분기 동안의 매출에 대해서는 96%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주요 식품 가격이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이 제조원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체의 거의 70% 가량이 3/4 분기 동안 평균 제조원가가 상승하였다고 보고했으며 마지막 분기에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.

마지막으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식품 제조업체들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1/3 이상인 36%의 업체들이 연구개발 투자비를 증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, 8%만이 투자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. 또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%의 응답자들은 4/4 분기에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